



##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다중 미디어 시대의 개막에 관한 시론적 연구

임종수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jslim123@sejong.ac.kr

이 글은 수용자의 탄생과 그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수용자의 정체성 논의,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미디어 수용자,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고유한 경험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 각기 다른 수용자에는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용자를 이해함은 물론 근대성을 규명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근대사회는 이른바 ‘읽고’, ‘듣고’, ‘보는’ 수용자들의 인지와 경험이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적 담론과 의미결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먼저 서구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우리 사회에서 독자, 청취자, 시청자의 탄생과정과 경험, 그 의미를 살펴본다. 논의 시기는 일제 식민시기에서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가 나름 성과를 보이고 텔레비전이 전성기에 이르던 1970년대까지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미디어 수용자의 다중 미디어 이용성,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일상의 매체에 어떤 궤적으로 서로 접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층적 미디어 소비에 있어 수용자-문화자본의 위계화와 개인화의 논리를 설명할 것이다.

**KEYWORDS** 수용자의 탄생 • 독자 • 청취자 • 시청자 • 다중 미디어 • 근대성

## 1. 서론: 근대와 수용자의 탄생

수용자 연구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이다. 커뮤니케이션학 양대 패러다임은 수용자 현상에 기반한 미디어 효과론과 의미해독(더불어 수용자 시장) 연구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전통은 1940년대 수용자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라자스펠드와 수용자의 문화소비의 계량화에 회의적이었던 아도르노 간의 논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강수, 1996 참조). 그러나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문화의 계량화, 취향의 계량화와 결부된 수용자의 계량화 시도는 불안하게 제도화되어 온 시청률 산업 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용자 연구는 주로 시청률로 표기되어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장의 재화, 혹은 텍스트의 자기장 안에서 파악되는 해석자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일찍부터 수용자는 그 태생적 정체성은 물론 그것의 문화적 실천이나 경험 등은 버려둔 채 이른바 효과론의 전통 안에서 능동성과 수동성 또는 비판론의 전통 안에서 주체성과 해석적 위치 등으로 '현재화'되어 있다고 지적된다(Allor, 1988). 현재화된 수용자 논의는 수용자 탄생의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주체로서 수용자의 고유한 속성에 대해 거의 대부분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함의한다.<sup>1</sup> 특히 수용자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과학주의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안고 있

---

1 그동안 텔레비전 연구는 일반문으로서 대중 매개(mass mediation)의 과정에, 특수문으로서 매체 수용(reception)의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결정인자(factor)를 밝히는 데 주로 천착해 왔다(Silverstone, 1994, pp. 2~3). 따라서 텔레비전 연구는 주로 인식과 행위의 파편화, 오락화, 폭력화와 같은 효과연구나 텍스트 중심주의(text centralism)에 입각한 기호학적 연구 혹은 그 반대편에서의 해독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양대 연구 전통을 결합한 수용분석(reception analysis)과 같은 시도도 있었다(Jensen & Rosengren, 1990). 그러나 분석과 사회구조, 분석과 역사 간의 관계가 그리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분석의 결과가 '사회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지도 않다. 역사적 맥락이라는 본원적 속성이 빠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는 역사적 해석을 점점 열어지게 했다(Hardt, 1992). 사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 미디어 수용자의 등장은 공동체 사회가 근대사회로 변화해 가던 시대적 맥락의 산물이다.

대표적인 수용자 연구자인 앙(Ang, 1991)은 텔레비전 수용자의 존재를 찾기 위한 커뮤니케이션학과 업계의 노력이 수용자를 어떤 결정적 유목으로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모호하게 얽혀 있는 수용자의 지위를 담론구성체로서 수용자와 실제 수용자의 사회 세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실제 수용자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발적이지만 구체적인 모습, 가령 시청이라든가 이용, 소비, 해독 등의 행위를 액면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담론구성체로서 수용자는, 일찍이 윌리엄스(Williams, 1961)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앤더슨(Anderson, 1983)의 저 유명한 통찰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근대사회의 국민이나 민족, 대중과 유사하게 상상적 실체(imagined reality)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상상적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정의되거나 규명되지는 못한 것 같다. 상상적 실체가 쉽사리 '허구'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허위식론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입장이 주는 간명한 설명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용자를 허구 혹은 허위로 치부하기에는 근대사회에서 수용자의 실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되어) 온 일들이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과연 수용자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태어났고(혹은 개념화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이 글은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수용자는 도서 및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가정 혹은 보편적 사회생활 안에서 성장해 온 미디어 수용자, 즉 독자, 청취자, 시청자를 일컫는다. 또한 수용자의 실천적 측면보다 주로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정치성과 자의성이 강조되는 실천과 달리 경험은 주어진 환경에서 발생한 행위 자체에 주목한다. 이는 언론 운동론적 차원에서의 수용자 실천 연구(채백, 2005) 외에 문화론적 해석을 위한 자료와 논의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필자는

수용자의 탄생과 이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수용자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독자, 청취자, 시청자로 명명되는 미디어 수용자,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고유한 경험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 각기 다른 수용자 간에는 어떤 일관된 흐름이 존재하는가 등이다.

당대의 특정 미디어를 통해 ‘인지’하고 ‘감동’하는 수용자의 궤적을 살피는 것은 수용자 자체뿐만 아니라 당대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근대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른바 ‘읽고’, ‘듣고’, ‘보는’ 수용자 개인의 감각기관과 문화자본은 개인적 삶은 물론 여론, 오락, 여가 등 사회적 담론과 행위, 의미결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3단계(부상적-지배적-잔여적) 역학(Williams, 1977, pp. 121~127)은 다른 한편 한 시대의 수용자 역시 한 시대의 미디어 환경의 탄생, 성장, 소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수용자의 탄생을 연구하는 것은 구경꾼의 탄생, 소비자의 탄생, 국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과 같이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 미디어 수용자의 다중 미디어 이용성, 다시 말해 20세기를 관통했던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라는 일상의 매체가 수용자들과 어떤 궤적으로 절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향해 있다(이재현, 2006; 김예란, 2005 참조). 독자가 곧 청취자 혹은 시청자이고 그 역도 성립되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별 수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혹은 순수하게 독립된 실체로서 미디어를 이용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미 특정 미디어의 수용자는 미디어 도입 과정 속에서 신민, 가족, 개인, 국민, 문화인, 비문화인, 근대인 등 수용자의 정체성과 미디어에 대한 특별한 태도나 입장, 가치판단 등 미디어 소비의 위계성을 절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독자-청취자-시청자 간의 상호 교차적 미디어 수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하나의 우회적 전략으로서, 개별 수용자의 탄생 과정의 고찰을 통해 다중 미디어 이용의 고유한 속성을, 논문의 말미에서 유추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근대 미디어 초기의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을 통해 다중 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서구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지평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독자, 청취자, 시청자의 탄생과 경험,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자와 청취자, 시청자 간에 존재론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볼 것이지만, 개별 수용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험을 가지면서도 계열적으로 일관된 특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일제 식민시기를 기점으로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가 나름 완성단계에 이른 1970년대까지가 될 것이다. 특히 근대적 도서와 라디오,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한 시기와 나름의 대중성을 구축하던 시기가 핵심적인 분석시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 등장하던 초기의 독자, 청취자, 시청자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기도 했지만, 주로 학계에 이미 제출된 몇몇 연구에 많이 기대고 있다. 특히 독자 부문에 있어서 천정환(2005, 2004, 2003a, 2003b)과 김영희(2001), 청취자에 있어서 김영희(2003, 2002)와 임종수(2004a), 시청자에 있어서 임종수(2008, 2007, 2006, 2004b, 2003a)의 연구를 많이 참조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볼모지나 다름없는 역사 혹은 역사문화연구 분야를 두고 볼 때 이들 연구는 무척이나 의외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 글과 같이 파생 주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메타적인 논의도 쉽사리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기대된다.

## 2. 수용자에 대한 논의: 서구적 일반론

맥퀘일(McQuail, 1997)은 수용자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제공한다. 그는 수용자를 관객, 독자, 청취자, 시청자 등 사람들의 양적 집합체로서 파악

되는 수용자 외에 공중 또는 사회집단으로서의 수용자, 대중사회론에서 파생된 대중으로서 수용자, 특별히 미디어 생산물의 소비자이면서 미디어 수입의 원천인 광고의 소비자를 함의하는 시장으로서 수용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만큼 수용자는 정의하기에 따라 매우 다른 지위와 개념,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해 온 수용자상은 ‘집합적 유목’으로서 수용자 개념일 것이다. 이는 고대시대부터 존재했던 공공 극장이나 음악회장, 원형극장, 결투장 등에서의 물리적 집합성(physical gathering)을 개념적 기원으로 한다. 이들은 일찍부터 제1예술로서 연극은 물론 공연, 결투와 같은 퍼포먼스를 즐기던 일군의 집단이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아고라에서의 정치연설, 중세 대학에서의 수도사 집단 등 수용자라 할 만한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 가능하다. 근대사회의 제도화된 미디어에서 수용자 집단은 구독률이나 시청률, 클릭수로 환산되는 집합적 유목으로 그 근거를 삼는다.

근대적 의미의 대중매체 수용자는 인쇄매체의 도입과 더불어 등장했다. 인쇄매체는 텍스트에 대한 시공간적 원거리성을 극복하면서도 사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Kaufer & Carey, 1993). 이에 15세기 중반부터 동일한 텍스트를 읽는 독자 공중(reading public) 개념이 등장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독자공중이 수용자로서 산업적 속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책뿐만 아니라 잡지와 신문과 같은 인쇄 미디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sup>2</sup> 이들 독자들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던 독자공중에서 계급, 지위, 교육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화되는 실체로서 수용자군을 처음 정립한 수용자들이었다.

이러한 수용자 개념은 1920년대 방송의 등장으로 수신기 테크놀로

---

**2** 집합적 개념으로서 독자의 존재 외에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비평적 안목이 커짐에 따라 근대 문학에서 독자는 점차 그 존재를 확고하게 다져 왔다. 근대 텍스트 비평에서 이른바 바르트의 ‘작가의 죽음’ 선언은 그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의 죽음 너머에는 ‘독자의 탄생’이 있다. 독자의 탄생이란 수용자의 텍스트의 수용(과 비평)은 단순히 의미의 생산(production)에 있지 않고 의미의 수용, 생성(generating), 창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의 '소유'에 기반한 수용자 집단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여기에서 수용자는 전국 또는 전 지구적 동시성과 획일성의 효과 안에서 공명하는 집단군이였다. 무자비한 시공간 침투성과 여가활동상의 수동성으로 말미암아 방송 수용자는 때로는 어리석고 타락하며 생각 없는 존재로 비쳐지기도 했다(McQuail, 1997, Ch.1 참조). 그러면서도 방송 수용자는 다른 한편으로, 매우 배려하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으로 높은 건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대중 민주주의가 서서히 빛을 발하던 시기에 방송 역시 대중으로 통칭되는 일상의 수용자들을 받드는 전략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 초기 방송사가 수용자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초기 라디오(더 나아가 텔레비전까지)는 다른 무엇보다 수용자를 찾는 것 혹은 수용자를 만드는 것, 그를 통해 수용자와의 원격 친밀성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Moores/임종수·김영환 역, 2008, Ch.2). 이는 방송으로서 적절한 표현양식(mode of address)을 찾는 작업이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BBC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대부분의 토크 프로그램은 서툴기 짝이 없거나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청취자에 대한 가부장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초기의 권위주의적 표현양식은 한참이 지나서야 "보다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태도와 스타일"(Scannell 1991, p. 10)로 부드럽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설교나 강의 또는 무대공연과 같은 기존의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이 프로그램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적인 수용 맥락을 띠고 있는 일상적인 방송 모델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였다.

이때 방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수용자상을 기획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 것은 가정에 있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이였다. 가정 활동이라는 그녀들의 가상적 범위는 변화무쌍한 수용자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길잡이이자, 언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청취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계획자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방송은 일상 안에서 어머니가 수행하는 시간의 분절과 반복을 되풀이하는 순환적인 시간 리듬과 동시성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방송 편성은 어머니로 대표되는 수용자의 생활 리듬과의 상호 조응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로써 방송은 사적 영역에 정확한 시간 측정을 가져오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국가 시간을 가정화시키는 데도 성공했다(Scannell, 1989; 임중수, 2006; 이재현, 1999). 물론 방송 이전부터 많은 가정에는 다양한 시계가 있었지만 방송의 발전으로 하나의 콘텐츠가 수백만 가정으로 직접적이고도 동시적으로 중계됨으로써 일상의 동시성이 보다 확고히 구현되었다. 방송은 어머니로 대표되는 수용자상에 입각하여 편성과 콘텐츠 제작 및 수용의 관행을 구성해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청(취)율은 지금까지 방송 수용자를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인된 지표였다. (시)청(취)율은 그것이 비록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맥락 안에서 시청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수용자의 상태와 지위, 규모와 시장성을 확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이 요구하는 제도화된 집단으로서 수용자라 할 수 있는데, 스마이트(Smythe 1981)에 따르면, 시장조건 하에서 운영되는 이들은 '광고주에게 판매되는' 상품(audience commodity)이다. 상품으로서 수용자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공통된 규범을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동적 집단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런 수용자가 때때로 비상식적이고 혼 없는 대중의 지표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당대의 정서와 의식을 대변하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방송 초기 수용자 만들기를 통해 개념화된 집합적 유목은 수용자에 의해 구축되는 의미생성이나 사회적 실천 등은 배제하고 어린이, 여성, 저학력 집단 등 익명의 집단으로 개념화됨으로써 수용자 고유의 완전성이 결여된 집단이었다(Allor, 1988; Hartley, 1987). 이에 대해 하틀리(Hartley, 1987)는 수용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평, 산업, 규제 집단이 담론적으로 구성해낸 허구로서 상상적 공동체일 뿐이다. 따라서 특정 채널 혹은 프로그램의 수용자라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시청자는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러(Allor, 1988)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수용자의 계량적 개념에 대한 대안을 비판적 전통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노동력, 호명, 성 전형화, 해독, 시뮬라시옹과 같은 '분석적 담론' 아래에서 위치하는 매우 모호한 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말한 분석적 담론으로서 수용자란 시장과 상품으로서, 더 나아가 자본과 연결되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 내는 추상적 표상으로서 정치경제학적 수용자, 몰입과 기피, 동일시, 호명, 이데올로기 실천 등으로 표현되는 후기구조주의적 수용자, 여성의 성 정체성, 해석적 즐거움,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유토피아 세계를 공유하는 집단과 같이 성에 기반한 해석 스키마를 발전시켜 온 페미니즘적 수용자, 텍스트의 선호된 의미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텍스트의 다의성과 해석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연구적 수용자, 주체와 사회적 위치가 절연되고 집단정체성이 해체되는 대신 텍스트 외부에서 상호 관계를 조직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수용자 등이다. 각각의 비판적 연구전통이 그들의 학문적 배경에 입각하여 담론체로서 수용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러의 논의는 수용자가 마치 구체적인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간주했던 수용자 연구 경향에 일침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집합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광고와 경제, 여론과 정치 등으로 현실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수용자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 역시 분명해 보인다. 히틀리나 알러의 주장처럼, 수용자가 허구 혹은 담론적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론이라든가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실재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절차들, 가령 선거나 정책 집행, 권력이양, 사회적 유행 등은 허구와 복잡한 담론의 기반 위에 위태롭게 놓여진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상상적 공동체의 층위에서 정의할 수 있는 수용 공동체로서 어떤 실체이다. 상상적 공동체는 단순히 허구나 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 공동체는, 비록 물질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상과 행위를 규율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재(the real)이다.

그들은 당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존재로 위치 지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시대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사회에 그 실체성을 드러낸다. 그 실체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용자의 동시 경험이 주는 정상성(normality)이다. 정상성은 현재성(nowness)으로 전달되는 텔레비전 세계와 상호 조응하는 당대의 정서와 의제, 태도와 행위를 의미한다. 엘리스(Ellis, 1982, Ch. 10)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가정 공간에서 외부 세계를 가장 안전하고 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양식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청자는 양식화된 텔레비전 콘텐츠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텔레비전 특유의 대중적 소비로 인해, 텔레비전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상 시민(normal citizen)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 미디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당대의 생성적 주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수용자의 정상성 경험은 때때로 집단기억을 통해 역사성을 창출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은 객관성과 진정성으로 인지되고 실천되기 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집단 기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Halbwachs, 1992). 집단 기억은 개인만의 자전적 기억이나 역사적 기록으로 전승되는 역사적 기억과 달리,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기억을 뜻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기억이 아니라 '기억의 사회적 틀'을 통해 기억되는 과거이다. 베스트셀러나 방송의 집단 노출은 집단 기억이라는 매우 강한 의미의 사회적 작용을 수행한다. 특정 사회의 개인은 바로 이러한 기억의 사회적 틀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은 사회적 집단성을 띠고 동시에 나와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한다(오경환, 2007). 이러한 집단 기억은 통상적으로 해당 사회의 사회적 표상,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표상은 영화나 드라마, 포스트, 책, 박물관 등 유무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수용자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고 기억되는 이른바 집단 기억으로서 근대적 삶의 담지자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수용자는 집합적 유목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정된

어떤 실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삶의 결 사이 사이에 수용자로서 형성되고 사라지기를 거듭하는 '생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국면 국면에 따라 어떤 힘으로 구체화된(되는) 존재이다. 그런 그들의 존재는 근대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의 힘, 다시 말해 근대사회가 인지하고 감동하는 수용자들의 인지와 경험, 실천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는 것이다. 근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청각과 시각에 기반한 즐거움, 오락, 여가, 여론, 이데올로기, 의미작용 등 수용자 현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탄생은 전통적인 국민의 탄생이나 시민의 탄생과 같이 특별한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구경꾼의 탄생, 소비자의 탄생과 같이 특별한 감각기관과 문화자본을 동원한 근대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실 근대는 폭발적인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구경꾼의 시대이기도 하다(Schwartz, 노명우 역, 2006). 구경하는 주체로서 구경꾼은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도시, 일찍이 기 드보르(이경숙 역, 1996)가 지적한 스펙터클 사회로서 근대사회의 결과물이자 그 원인이다. 여기에서는 시각을 통한 인지활동이 무엇보다 두드러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구경꾼이든 스펙터클이든 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급과 젠더 혹은 지역이나 출신은 보는 행위를 규율하는 백그라운드라는 것이다. 구경꾼의 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관찰자의 시대이기도 하다. 크래리는 일반적으로 19세기 관찰자에게 일어난 것은 근대화의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Crary, 임동근·오성훈 외 역, 1999). 이 시기 관찰자는 근대성으로 통칭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사건들, 힘들, 제도들에 부합되도록 형성되었다. 따라서 관찰자의 경험은 일찍이 없었던 관찰하는 주체의 역사적 형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관찰자 역시 보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규정된 가능성들의 체계 안에서 보는 사람이며 관습과 제한의 체계에 규율된 관찰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경꾼과 관찰자는 점차 간접적인 미디어 수용자로 변화해왔다. 주지하다시피, 점차 심화되어 가는 근대 미디어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것은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선택되고 표상

된 그 무엇이다. 집합성과 공통성, 집단 기억 등은 미디어 수용자들의 경험, 다시 말해 미디어의 결정과 수용자의 수용활동의 절합에서 모색된 결과들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방송을 통한 수용자의 시간달력, 공유된 민족국가의 삶, 일상적 규칙성, 시공간의 특정한 사용 등을 지적한 스캐넬(Scannell, 1989; Scannell, 1996)의 설명<sup>3</sup>이나 미시적 차원에서 텍스트의 의미결정과 수용자의 의미해독 과정을 투쟁관계로 설명하는 문화연구의 성찰 등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소설 및 텔레비전 이용에서 보여지는 해석 공동체(Radway, 1987; Lindlof, 1988)라든가 텔레비전 이용에서의 문화적 즐거움(Fiske, 1987; Ang, 1985; Lull, 1980), 특정 장르에 대한 이해 방식(Liebes & Katz, 1986) 가족 여가로서 텔레비전 이용(Morley, 1986) 등에 관한 접근 등 다양한 층위의 수용자 연구가 존재한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이른바 민속지학적 연구방법론이 미디어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1980년대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스투어트 홀(Hall, 1980)의 부호화/해독 모델은 현장으로의 참여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작동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가령 몰리(Morley, 1986)의 가족 텔레비전(family television) 연구는 텔레비전 수용자가 가족 여가라는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젠더와 세대의 측면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가부장주의를 상징하는 거실의 소파와 리모콘, 께끄러운 즐거움(guilty pleasure), 여성의 사회생활 여부, 남녀간 텔레비전 시청동기의 차이로 설명되는 젠더의 문제는 텔레비전 시청자로서 개별 수용자의 지위와 위치, 해독 등을 비교적 명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에 대한 설명은

---

**3** 스캐넬은 미디어 수용자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주체(someone)이면서 익명적 다수(anyone)로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구조(for-anyone-as-someone-structure)라고 설명한다(Scannell, 2000 참조). 그의 설명은 개인으로서 주체의 속성과 다수라는 집합적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시도의 한 예를 보여준다.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그들은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었는가? 그들의 고유한 경험적 세계는 어떠했고 당대 사회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독자, 청취자, 시청자로 이어지는 각 수용자에는 어떤 단절과 연속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흘러간 과거의 수용자를 음미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수용자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시대의 수용자는 한 시대의 미디어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과 결부된 채 탄생과 성장 소멸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탄생과 그들의 경험을 살피는 것은 당대의 사회와 결부되어 있는 수용자의 구체적인 상을 통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근대성에 한걸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독자의 탄생에서부터 청취자, 시청자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미디어 수용자의 탄생과 그를 둘러싼 정체성, 경험을 살피는 것은 그 때문이다.

### 3. 독자의 탄생: 텍스트 미디어의 경험

근대적 독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른바 유교적 서생으로서 양반들만의 읽고 쓰는 행위가 아닌 대중들의 읽기와 쓰기가 보편화되었음을 뜻한다. 그 시작이 언제인가는 근대화의 시점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유선영(1993)은 대중적 읽을거리의 등장을 임·병 양란 이후 조선후기와 일제 강점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녀에 따르면,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신분제의 불안으로 야기된 평민의 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자유로운 감각과 여가, 부녀자 독자층의 확대, 광범위한 필사 및 상업적 판본(방각본)의 등장, 직업적 문사와 청문예(聽文藝)의 출현 등으로 말미암아 조선후기는 그 이전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중적 읽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일제 강점기는 직업적 소설작가와 그들이 생산해 내는 허구성의 문학, 저널리즘 문학, 문자해독력의 확대에 따른 독자층의 증가 등으로 구소설과 같은 전통적인 읽을거리는 쇠퇴하는 반면, 근대적 읽을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천정환(2003b) 역시 일제 강점기 읽는 문자 매체가 보급된 것은 보다 향상되고 진보된 활판 기술의 보급 외에 장서의 다종화, 탈유교적 콘텐츠의 다양화, 문자 리터러시의 보급 및 인식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과정을 독자층의 등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조선후기는 구소설류나 가벼운 읽을거리에 주목하는 중인 및 상인계층 및 그들의 부녀자, 낙향 양반과 양반층 부녀자가 새로운 독자층이었다. 직업적 문사와 상업적 방각본, 대책업(貸冊業) 등은 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자 그 결과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시기는 근대적 의미의 읽고 쓰기보다 말하고 듣는 청문예의 전통 안에서 읽고 쓰기가 보조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일제 강점기는 보통교육의 실시에 따른 한글 및 일본어 문자해득력의 강화로 보다 근대적인 형태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문학에서는 신소설이 주목을 끌었고, 그 외에도 종교, 교육, 어학 분야도 많은 출판물을 내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 독자층이 일순간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김영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은 식민 초기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 1920~1930년대를 지나면서 독자층이 조금씩 확대, 분화되었다. 따라서 1930년까지 한글은 전체 인구의 약 15%, 한글과 일본어는 약 7%만이 깨우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주된 독자층은 보통교육을 통해 근대적 문자 리터러시를 깨우친 학생과 교사, 부녀자 및 농공상 등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로서 이른바 '모던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세대는 유서, 족보 등을 주로 읽는 유생이나 양반과 달리, 신소설과 대중적 신문, 잡지와 같은 근대적 읽을거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근대문학을 상징하는 신소설과 잡지, 신문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순수한 의미의 근대적 읽기와 쓰기를 실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특별히 어린이, 아동, 청년, 청소년 등 기성세대와 다른 신세대의 독서 현상이 특기할 만하다. 천정환(2003a)의 분석에 따르면, 3·1 운동 이후 본격적인 근대교육이 불붙으면서 1920년대 동요,

동화, 아동독물 등 어린이 책은 신소설의 발간 종수에 맞먹을 정도였으며 어린이 관련 잡지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아동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높은 교육열과 취학 아동의 증가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당시 광범위하게 주목받던 이른바 ‘어린이기의 발견’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이기훈, 2002; 천정환, 2003a). 이제 10세 이하의 아동은 물론 10대 청(소)년들은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서(김혜경, 2000) 근대적 독서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천정환(2003a)에 따르면, 당시 최남선이나 이광수 등은 이들 세대를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교육 없는 구세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신생 대한(大韓)의 신중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광수의 ‘신생활론’, ‘자녀중심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세대는 1910~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에 완성한 독자층의 성층화 과정에서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 ‘엘리트적 독자층’을 형성한다(천정환, 2005). 근대적 대중 독자층은 대중소설, 신문연재소설, 일본통속소설 등 소설과 야담, 『별건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대중적 신문, 잡지를 구독하는 층이라면, 엘리트적 독자층은 신문학의 순수문예작품과 외국 순수문학소설, 『개벽』, 『신여성』, 그 외에 학술지 및 일본어 잡지 등을 구독하는 층이라 할 수 있다. 신식교육을 받은 이들 독자층은 전통적인 방각본과 구활자본, 일부 신소설 등을 읽는 ‘전통적인 독자층’과 뚜렷이 구분되는 근대적 독자층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게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독서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식민지 이전 구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식민지 세대는 그 윗세대와 비교해 광범위한 읽고 쓰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 사고에 바탕한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다. 그런 그들의 독서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인 혹은 근대인의 지위를 가져다주는 ‘취미’이며, 국가적으로는 ‘부국자강’과 ‘문명화’를 모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였다(이기훈, 2001). 그러나 읽기가 주는 문화주의적 효능이 면에는 대중화된 읽기의 폐해, 가령 1920년대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

로 퍼진 성(性) 관련서라든가, 대중적 감각에 치우친 소설류에 대한 비판 등이 다른 한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천정환, 2005, 2003a). 1910년 전후부터 지식인층은 소설 독자를 ‘우부우부(愚夫愚婦)’, ‘아동주졸(兒童走卒)’, ‘목불식정(目不識丁)의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소설이 계몽운동과 국민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설 자체가 주는 가벼움과 오락성으로 말미암아 “소설은 여자와 시정 무식배가 제일 즐겨하는 바”라는 지적을 감수하기도 해야 했다(천정환, 2003b, 81쪽). 더욱이 문자라면 덮어놓고 신문화로 경배하는 조류 속에서 음란도서가 그 품목에 끼어들기도 했다. 문화인으로서 독자의 이면에는 감각의 자유로움에 주목하는 데카당의 비문화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대중적 읽기와 쓰기는 근대적 독서 문화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대중들의 근대적 읽기와 쓰기 양식은 구시대의 ‘공동체적 읽기/음독’과 달리 ‘개인적 읽기/목독’으로 변화해 갔으며, 그에 따라 문화의 감각적, 인지적 구조와 지(知)의 편재방식도 바뀌어 갔다(천정환, 2003b). 경전을 입과 귀를 통해 전해지는 지식과 달리, 근대적 지식은 문자의 가시적 형태로 축적된 그 무엇으로 바뀌어 갔다. 이는 근대사회의 지식의 생산과 사회적 활용, 지식의 사회 역사적 존재양식 면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근대적 쓰기와 읽기는 오랜세월 이어온 양반 중심의 경전적 지식과 민중들의 구술문화의 지식 - 정보 생활을 시각 중심의 지식생활로 전환시켰다.

문자는 영상 고유의 속성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것 역시 말하고 듣는 청각적 구술 문화와 비교할 때 시각 문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문자의 시각 문화는 영상과 달리, 예의 그 선형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과학주의와 획일성, 개인적 수용을 특징으로 한다. 선형성이란 문자를 통한 의미작용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경유하면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시간의 전후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이 선형성의 문화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이야기하기에서 허구적 소설로, 일부 양반층



에서 광범위한 대중으로, 음독에서 묵독으로, 서책에서 잡지와 신문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문자 문화이지만 신문이나 잡지는 ‘읽는’ 책과 달리 ‘보는’ 매체라는 점이 새삼스럽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영상정보에 대한 시각활동과 유사하게 활자정보를 힐끗 쳐다보다가 때때로 꼼꼼히 사안을 살피는 독자의 독특한 묵독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신문 저널리즘 중에서도 신문연재소설은 ‘읽는’ 콘텐츠였다. 신문연재소설은 일제 강점기 광범위하고도 뚜렷하게 등장한 새로운 문학적 경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신문 자체의 독자층과 구분되는 신문소설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고유한 신문소설 독자층으로 말미암아 소설의 내용과 방향도 특징지어졌다. 1933년 김동인(『조선일보』, 1933)의 주장에 따르면, 신문소설의 독자는 가정부인과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 독자층의 요구사항을 보면, 가정부인의 경우 모성애, 가정적 갈등, 눈물, 웃음, 안타깝다가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반면, 학생은 연애, 모험, 피기, 활극, 삼각, 사각의 갈등, 공포, 수수께끼 등이다. 연애와 모험이 신문소설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신문연재소설의 독자들 역시 일반 독서에서와 유사하게 문예적 교양과 정신적 양식의 계발과 같이 읽기를 통한 공리주의 실현의 주체이자 대상이었다. 일제 강점기 신문연재소설에 관한 민병덕(1989)의 연구를 보면, 『혈의 누』 작가 이인직은 “신사상을 서양소설투”에 담아 “독자에게 읽히면 국민의 정신을 감발(感發)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광수도 『무정』을 통해 민족주의를 선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외에도 한국문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당대의 신문연재소설은 대체로 공리적 효용주의를 기본적인 문학관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도 작품의 공감 구조는 일반 보통 수준의 독자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이 채택됐다. 당시의 시대사조를 반영한 신교육사상, 자유결혼관, 남녀평등관, 조혼금지, 개화 등은 금력과 애정의 갈등, 지고지순한 사랑과 같이 대부분 애정을 전면에 내건 연애 이야기를 통해 전개되었다. 이는 전래의 기담에서 개연성과 추리라는 ‘합리적 재미’로 무장한 당시 신문학의 변화를 반영한다(천

정환, 2004). 신문연재소설은 향후 지배적인 신유행 사조, 내용 전개의 합리화, 새로운 읽을거리와 읽는 방법 등이 저널리즘과 상호 절합하여 빚어낸 문화 장르였던 셈이다.

일반적인 신문독자는 일반도서의 독자와 많은 부문 겹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근대신문인 개화기의 『한성순보』는 주로 지방 관청을 중심으로 배포되었다(정진석, 1990, 90쪽). 이에 따라 관리와 소수의 지식인이 중심인 최초의 근대적 신문독자군이 형성되었다. 이들 신문독자층은 1920년대 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민간지에 힘입어 그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김영희, 2001).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후반기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제한적인 리터러시 층으로 말미암아 신문독자층 역시 신식교육을 받은 15세 이상의 남성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당시 열악한 가정경제 환경 하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초기 신문독자층들은 한글과 한문을 깨친 부호나 지주,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 고급관리, 사업가나 그들의 자녀들로 제한되었다.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의 중산층 이상과 농촌의 지주계층 남성이 주된 신문 독자층이었던 셈이다.

이후 1930년대 장기화된 식민지배 체제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말미암아 독자층은 일본어 리터러시층으로 서서히 전이되어 갔다.<sup>4</sup> 만주침략(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태평양 전쟁(1941년) 등과 함께 진행된 민족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글 교육은 점차 밀려나는 대신 일본어 교육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신문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신문시장도 국내 일본어 신문 발행부수는 물론 일본에서 발행한 신문의 국내 보급부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결과 1940년대는 이른바 민족지의 정간과 더

---

4 김영희(2001)의 분석에 따르면, 세대당 신문 보급률의 경우 1929년 100세대당 2.49부(일본어 신문 포함 2.9부)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1939년에는 100세대당 4.72부(일본어 신문 포함 7.1부)로 증가한다. 한글 신문 보급률은 약 2배 증가한 반면, 일본어 신문의 경우 그보다 많은 약 2.5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불어 거의 20%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본어 신문, 잡지, 도서를 읽는 독자층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김영희, 2002, p. 159).

이와 같은 신문독자층의 변화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초기 신문독자층의 신문 접촉이 지금과 같이 개인 독자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근대 신문 초기에는 낮은 문자해독력과 경제력 등의 문제로 독자층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신문대독, 윤독, 신문잡지종람소를 통한 구독, 구독료 대납, 공공기관 구독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자층 확대 노력이 있었다(채백, 1998). 이러한 경향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듯하다. 김영희(2001)가 인용한 글을 보면, “시골을 가서 보면 석유 등잔에 흐미한 불빛 밑에서 동리사람이 뭉여 앉아서 신문장이 헤어지도록 돌려 가면 읽는 거기는 신문에 난 말이면 만고의 진리로 듣는 형편”(무명거사, 1931)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1920년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개화기 신문잡지종람소와 구별되는 카페, 다방에서의 신문읽기와 같은 인텔리 계층의 사교행위와 구별된다(이상길, 2003). 다방 안 “예저기 널려 있는 그날그날의 신문과 헐어진 그달 그달의 취미잡지, 영화잡지” 등은 “창백한 인텔리급의 청년남녀”(이상길, 2003, 126쪽 재인용)들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품목이었다. 1920년대 식민지내 다방이나 카페가 근대적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으나, 유성기, 레코드, 화분 등으로 치장된 카페와 다방 내에서 개인 혹은 집단적 신문읽기와 대화라는 독자의 실천이 새로이 나타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경성과 같은 식민지 대도시에서는 신문 및 잡지의 개인 독자층이 개인의 취향활동과 더불어 분화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서든 신문잡지든 독자의 탄생은 근대 대중문화의 첫 수용자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독자 역시 대중으로 흔히 분류하지만, 일제 강점기 대중이라는 용어에는 노동자 계급과 같은 실체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독자에는 부녀자로 호칭되었던 주부나 어린이, 청(소)년, 개화인사 등 모던세대라 불렸던 근대화 신세대가 대부분이었다. 1920~1930년대 뚜렷하게 등장했던 이들 독자층은 조선후기부터 형성

되었던 전통적인 고전물을 읽던 독자층과 구별된 개화와 신질서를 체득한 근대인이었다. 당시 이들 독자층은 신소설과 신문, 잡지 등 저널리즘으로부터 합리적 재미, 신유행 사조, 국내외 시류에 대해 읽고 쓰기의 방법을 체득한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들 독자들은 문화와 비문화의 이중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1930년대 형성된 인쇄물 및 독자층에 대한 이중적인 취향 판단, 제도적 수용 체계는 지금에 와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다. 읽기와 쓰기가 가지는 고급과 순수, 문화와 문명적 시각은 대중과 통속, 저질과 오락, 데카당과 양가성을 이룬 채 독자 수용자의 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 4. 청취자의 탄생: 라디오의 경험

근대적 독자가 탄생하던 그 시기에 즈음하여 라디오 청취자도 함께 탄생했다. 청취자라는 말은 1920년대 전반 국내에서 실행된 라디오 실험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1924년 『조선일보』(1924. 10. 6, 4면)는 “엇더한 곳에서 말을 보내게 되면 그 말이 전하여 갈수 잇는 거리 안에서는 그 슈신기(受信機)를 가진 이는 천사라고 만사람이고 일제히 가튼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 보내는 곳을 방송국(放送局)이라 하고 말듣는 자를 청취자(聽取者)라 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방송국의 말을 듣는 자가 곧 청취자라는 것이다.

이 청취자는 1927년 식민지 하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인 경성방송국(JODK)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어 중심의 초기 라디오는 1933년 한국어 전용방송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그 외연을 넓혔지만, 식민지 경제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청취자가 크게 늘지는 못했다. 편성 또한 지금과 달리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작하고 임의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 생활과 밀착했다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임종수, 2004). 당시 방송인의 회고를 보면(이해구, 1960), 편성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은데다가, 심하게 말해서 방송

제작자 기분에 따라서 방송시간이 들쭉날쭉했다. 심지어는 아나운서와 기술자 간의 반목으로 방송이 중지되는 등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경우도 많았다.

식민지 시기 라디오 청취자는 존재 자체가 그리 흔치 않았다. 당시 체신국에 라디오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더라도, 1940년대에 70%를 넘어선 조선 내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은 이제 겨우 1%대의 라디오 보급률을 보였다(김영희, 2002, 165쪽). 그런 만큼 조선인에게 있어 라디오는 최첨단 미디어로서 당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매체였다. 따라서 라디오 청취자 역시 신문 및 소설독자와 마찬가지로 식민시기의 경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사회 상층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청취자는 독자와 달리 문자 리터러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청취권이 넓은 편이지만, JODK는 1933년 이중방송 이전까지 일본어 자체 제작을 했음은 물론 일본 본토의 중계방송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일본어 중심의 방송이었다. 심지어는 이중방송 이후에도 지식 및 관료층은 주로 일본어 방송을 즐겨들었기 때문에(김영희, 2002, 158쪽), 식민 시기 라디오 청취자는 일반적인 대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라디오 등록 청취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김영희, 2002, 169쪽), 공무원, 은행·회사원, 상공업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외중에 1930년대 취약한 청취층을 극복하기 위해 단행된 청취료 인하, 수신기값<sup>5</sup> 인하 등 ‘청취자배가운동’이 있었다. 제2 조선어 방송이 본격 출범한 1933년 이중방송은 한국 청취층 확대를 통한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취층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농촌 등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여전히 라디오의 혜택을

---

5 경성방송국 라디오 수신기 보급과 수리를 담당하던 직원(최검철, 1977)의 회고에 따르면, 쌀 한 가마에 7원하던 1920년대 후반 광석식 라디오는 50~60원, 진공관식 라디오는 100~500원, 슈퍼헤텔로다인 라디오는 1000원으로 라디오가 매우 고가의 첨단 미디어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지 못한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동 청취는, 앞서 신문잡지의 공동 수용이나 훗날 텔레비전에서의 공동 시청에서와 유사한, 초기 라디오 시대의 중요한 청취 관행의 하나였다. 김영희(2002)에 따르면, 라디오 청취는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청취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청취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설명한다. 이내수(2001)는 방송가 뒷이야기로 “쌀 열가마니보다 더 비싼 라디오를 사들인 시골 부잣집 사랑방에는 저녁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공짜’로 라디오 청취를 즐기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시골 동네의 이러한 풍경과 달리 근대화된 도시는 시골벽적인 도로변의 라디오 소리로 공동 청취의 풍경을 드러냈다. 다음 글은 1920년대 후반 라디오 확산기로 시끄러운 경성의 도로변을 설명하고 있다. 라디오 전문점은 물론이거니와 양화점, 축음기상회, 기타 주요 가게에서 확산기로 라디오를 들려주는 것이 상(商) 행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경성탐보군은 “이발소, 목욕탕, 식당 같은 데에서 사오십원 짜리라도 훌륭하니 라디오를 손님에게 들려준다면 정해놓고 손이 많이 꼬일 것이요, 술파는 집에서 그렇게 하면 확실히 술이 더 팔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현세상점이나 구미양행에서 확산기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라디오를 들려주는 것은 라디오기계 판매업이니까 말할 것 없으나 박덕유양화점에서 일백십여원짜리, 조선축음기상회에서 백여원짜리 확산기를 점두에 놓고 손님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남대문통의 백상회에 서도 사백여원짜리 라디오를 놓았다. (경성탐보군, 1927, 106쪽)

우리는 여기에서 근대도시에서의 구경꾼의 등장만큼이나 ‘청취꾼의 등장’이라 할 만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라디오의 기계음 가득한 도시 풍경과 그것을 청해 듣는 청취꾼은, 다른 한편으로 다방, 카페 등에서의 유성기 듣기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소리의 대표 목록이라 할 만하다. 라디오, 유성기, 레코드 등으로 이어지는 청취 산업으로 말미

암아 “사람들의 귀는 (근대적으로) 길리어지”는 것이다(『동아일보』, 1933, 11. 2). 라디오 등장 이전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듣기’와 ‘음악감상’의 방법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에서의 ‘취미’와 견줄 만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당시 라디오가 전해준 콘텐츠로부터 근대적 형태의 ‘극’에 대한 감성과 ‘시사적 문제에 대한 자각 역시 라디오의 ‘듣기’가 계발해 낸 새로운 감각이자 인식 지평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라디오 청취자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음악감상, 드라마로 칭해지는 극의 수용, 뉴스 및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폭을 의미한다. 당대의 최첨단 미디어와 더불어 탄생한 청취자들은 “동양의 조그만 반도에도 문명의 리기 앞에 웅기종기 모여서 라디오로 오는 전파에 희로애락을 맞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안테나생, 1936, 274쪽). 이에 따라 이제 “방송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문화인으로서의 권리”(『조선일보』, 1937. 10. 21)인 시대가 도래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근대적 문화인으로서의 듣기의 아비투스(아비투스)가 생겨난 것이다.

마동훈(2003)은 당대의 라디오 경험을 구술사적 방법을 동원해 ‘유동성의 사사회’ 과정의 제한적 체험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식민 시기 경이적 테크놀로지(1950~1960년대 사회적 매체로 성장한 라디오는 상상적 공동체로서 민족과 국민의 고유한 경험의 매개자였다. 더욱이 라디오는 일부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 외부, 더 나아가 반도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유용한 매체였다. 그것은 지극히 근대적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라디오에서의 이러한 삶의 양식은 훗날 우리 사회가 “매운 모깃불 대신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가족들 간의 정다운 대화 대신에 텔레비전 화면에 정신을 팔”(임덕규, 1979, 16쪽)게 되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1930년대 모던 가정에서의 라디오 듣기(임인생, 1930), 1970년대 가족 텔레비전 시청(임종수, 2003a)은 화투, 환담, 노래 등 전통적이면서도 비매개적 오락과 구분되는 지극히 근대화된 여가 및 오락 문화이자 당대의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방송 수용자의 등장으로 세상의 질서도 새로이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옛날 이야기는 방송 드라마의 재미를 따라갈 수 없고, 삶의 지혜는 뉴스의 합리적 세상읽기를 넘어설 수 없게 됐다. 1970년대 중반 어떤 기자는 시골 마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들어 오면서 “저녁이면 사랑방, 안방에 모이던 ‘마실’이 없어졌고, 그들의 입에 서는 민요 대신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건설 수출 증산’ 등 TV 슬로 건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TV는 그들에게 과거의 어느 신보다 더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의 태도와 가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었다(이주혁, 1974, 265~266쪽).”고 적고 있다.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던 생활의 지혜와 재미난 이야기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밀려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20~1930년대 라디오 청취자, 1960~1970년대 텔레비전 시청자는 곧 근대적 문화인이며, 이러한 문화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질서, 권위, 심지어 오락과 여가, 즐거움 등은 시나브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임중수(2006)의 연구에서 일제 강점기 라디오를 통한 근대적 삶의 양식과 식민지 규율을 엿볼 수 있다. 라디오 시보는 근대적 형태의 표준 시간의 대명사였다. 시보는 방송 초기부터 있었는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시보는 주로 방송이 끝날 때나 정오 때 방송됐다. 이와 더불어 저녁 7시에 뉴스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중방송 이후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7시가 초저녁 뉴스 시간대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방송이 시행된 1933년 조선어 JODK 편성표를 보면 지금의 메인 정시뉴스라 할 수 있는 뉴스가 7시에 방송되고 방송이 종료되는 밤 9시 30분에는 라디오 시보를 방송하여 하루를 정리했다. 이러한 시보방송과 더불어 정오 정각에 광화문에서 사이렌을 울림으로써 표준시간을 알리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시보 방송은 통제 대상인 보도 프로그램의 기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중방송 이후에도 동경의 JOAK를 받아서 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7시와 정오 등 주요 행동시간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실 JODK에서 시보방송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은 식민 본국과 식민지 간의 '동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시성은 시간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중요한 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JODK의 출범 자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라디오 청취자는 '식민지 문화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의 대상이었다(임종수, 2006, 2004 참조). 이는 특히 식민 후기에 이르러 크게 강화되었는데, 1933년 이중방송의 한국어 방송의 주요 목표로 '농촌부흥', '부녀교육' 외에 '심전개발(心田開發)'이 지향하고자 했던(최창봉·강현두, 2001) 내선일체 정책에서 그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후반기 시보방송은 전신체제에 의한 신민화와 대중 동원의 시간 통제 수단으로 확실히 변질되어 갔다. 1937년 만주사변 이후 매일 아침 '궁성요배(宮城遙拜)'와 매일 밤 '황국신민의 서사' 방송으로 시작한 일제의 시간 통제는 1940년대를 넘어오면서 정오 시보를 전후한 1분간의 묵념시간으로까지 확장됐다(윤대석, 2003). 원래 1939년 전장의 노고를 생각하며 봉공의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로 월단위로 시작한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 묵념은 1941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매일 행사로 바뀌었다(津川泉, 김재홍 역, 1999, 87~95쪽). 이때 전 국민을 하나의 통일된 행동으로 정렬시키는 '라디오 체조'가 정책적으로 보급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하의 라디오 청취자들은 아침 기상에서부터 낮 시간, 저녁 취침 시간에 이르기까지 식민의 시간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 방송은 황국신민화를 일상의 시공간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황국식민의 서사 방송이나 라디오 체조와 같은 표준화되고 동시화된 전체주의적 행동 속에서 개인 혹은 집단 청취자에 의한 '신민'의 형성을 목격할 수 있다. 외양적으로는 라디오라는 방송매체의 구조적 속성에 힘입은 일상적 삶의 표준화와 동시성을 실현했지만, 그 안에는 청취자의 시간과 공간, 의식과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과 황국신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상의 청취자가 곧 황국신민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라디오 체조가 겨냥한 신민화는 지배집단에 의한 시간 통제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의 집단성과 신체 관리의 성격도

엿볼 수 있다. 근대적 시간 체제를 향한 ‘동조장치’로서 라디오는 시간과 청취자 개인의 신체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당대의 대중을 신민으로 제도화시키는 일상의 테크놀로지였던 것이다.

물론 일제 강점기의 라디오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표준화와 동시성, 정기성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방송만의 세련된 동시성과 정기성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실제로 라디오가 대중의 생활 패턴에 조용하는 편성 관행을 본격화한 것은 방송의 근대화가 추진된 미군정 시기였다(이재현, 1999; 임종수, 2004a 참조). 무엇보다 큰 변화는 주간 기본 방송순서가 도입(1946)됨에 따라 이동편성에서 고정편성으로 전환하여 정기성이 형성된 데 있다(노정팔, 1995, 83쪽). 이후 라디오 편성의 정기성과 연속성은 한국전쟁 후 일일 방송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확고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기다렸다가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정기적인 청취습관(한용희, 1959)이나 가족시간대의 규칙적인 청취습관 등 동시성과 정기성의 방송 청취행위 패턴이 일상화되었다.

1960년대 전성기 라디오 청취자는 이제 방송의 재미를 만끽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동시성과 정기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라디오 역시 반공과 근대화의 국면과 맞물려 여전히 시간 통제의 규율 매체로 적극 이용되었다. 일반 라디오 방송 외에 라디오의 1/20 가격에 해당하는 ‘앰프·스피커’는 고정된 방송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냄으로써 아침 5시에서 자정까지 아침 기상은 물론이고 출퇴근, 시보, 취침 등 서민들의 시간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안미암, 1963, 52쪽). 뿐만 아니라 전후 라디오 체조시간이 오전 5시 25분과 정오에 각각 편성되어 하루 두 번 아침기상과 일상의 업무조정에 방송이 관여했다(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 93쪽). 재건과 근대화 시기 라디오의 표준화와 동시성, 정기성의 시간 체제는 일제 강점기에 그랬듯이, 가상의 청취자의 행동과 의식을 상상적 실체로서 국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서도 라디오 청취자들은, 독자에게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훗날 시청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 취향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

회적 비판과 경멸로 인해 일관되게 규율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찍이 1930년대 전후의 문화의 근대화 과정에서 신문학 독자가 문화의 대중적 저급성과 저질성, 통속성, 획일성이라는 딱지(천정환, 2003)를 안았던 것과 양립한다(서재길, 2007). 문화인 청취자는 새로운 전파 문화의 재미를 만끽하는 존재이면서도 식민과 근대화에서 신민 혹은 국민으로서 훈육 받은 주체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통속성과 세속성, 비인간성의 전형이기도 했다. 이러한 3중의 주체 구성 구조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텔레비전 시청자 시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5. 시청자의 탄생: 텔레비전의 경험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이름자도 못쓰는 할머니도, 대학을 나온 며누님도 아버지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최요안, 1958, 50쪽). 이러한 당대의 인식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크다. 문화적 리더러시를 요구하는 독자와 달리 청취자, 시청자는 일반 대중이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 문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중은 문화적 칭호를 부여받는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청취자 혹은 시청자는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시청자 역시, 텔레비전이 라디오에서 진화한 것처럼, 청취자의 관행과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시청자는 청취자와의 역할 교환, 다시 말해 시청자가 미디어 수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라디오 청취자는 가족 혹은 집단 수용 상태에서 점차 개인적 수용으로 전환해 갔다. 그것은 텔레비전이 본격적인 가족매체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1970년대 초반과 정확하게 일치한다(최인규, 1976). 당시 『동아일보』(1971. 4. 5)는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를 “텔레비전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1968년경부터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

로는 “TV방송국과 중계소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실제 보급 수상기 대수가 60만 대를 넘는 1971년경에 들어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전하고 있다. 1960년대 가족매체로서 라디오가 대중매체화된 지 10여 년 만에 라디오는 개인매체, 텔레비전은 가족매체가 된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자의 첫 모습은 1956년 HLKZ-TV의 개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청취자의 연장이었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문화적 위치, 다시 말해 “라디오와 활동사진을 겸한 셈인 텔레비존”(『한국일보』, 1956. 5. 13)이라든가 “와— 활동사진이 붙은 라디오다”(『동아일보』, 1956. 5. 14)라는 탄성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찍이 “편리한 무선전화”(『조선일보』, 1924. 10. 6)인 라디오와 그 즈음에 소개된 “활동사진의 무선전신”, “라디오로 활동연송”(『조선일보』, 1927. 1. 16)이라는 텔레비전 소개문에서도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텔레비전은 가족매체로서 라디오의 매체적 지위에 영화의 강력한 시각적 효과가 결부된 첨단 테크놀로지였다.

이로써 영화의 ‘활동사진’이 붙은 라디오로서 텔레비전은 기존의 라디오를 발판으로 사적 소유와 사적 수용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자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초기 텔레비전에서 시청자는 그보다 앞서 ‘공공적 수용자’로서 지위를 먼저 가졌다.<sup>6</sup> 현실적으로 초기 텔레비전은, 수상기 크기에 따라 ‘가정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자 했던 인식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집단 시청(collective viewing)’의 담론이 따로 존재했음을 미뤄 볼 때, 공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성격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과 전파 범위의 한계, 낮은 풍경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sup>6</sup> 일찍부터 공공 시청자의 존재는 방송 초기부터 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중요한 참고 기준이었다. 첫 텔레비전 방송을 제작했던 최창봉은 개국날의 풍경을 “첫날 방송은 옥외시청수상기 앞에 모여든 가두 시청자들이 주 대상이었다(최창봉, 1977, 524쪽).”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매일 밤 프로그램을 연출(당시는 전부 동시에 생방송)하는 도중에도 부조정실 창 너머로 넘겨다보이는 종각 옆 수상기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머릿수를 헤아리며 많이 모였을 땐 신나게, 적게 모였을 땐 맥이 풀린 채, 방송을 진행”(최창봉, 1976, 30쪽)했다고 회고한다.

시청자 측면에서 보면, 텔레비전의 공공적 시청은 한편으로는 국가주의(nationalism)와 같은 집단성을 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근대사회의 공공적 볼거리(public spectacle)로서 방송 매체의 신기효과를 드러내 보이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아폴로 달착륙이나 복싱, 레슬링 등 각종 국제 스포츠, 〈아씨〉와 〈여로〉류의 일일극, 반공 목적극, 민족사관정립극 등의 (집단) 시청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집단 오락 기능에서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임중수, 2004b, 91~93쪽). 이 같은 사실은 일찍이 일제 강점기 라디오에 대한 공공 청취(public hearing) 관행에서도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서재길, 2007, 78쪽). 앞서 언급한 시보, 라디오 체조, 황국신민의 서사 방송은 콘텐츠 면에서 집단성 실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기한 공공적 볼거리로서 만국 박람회와 같은 이벤트에서는 물론이고 한동안 술집이나 식당과 같은 공간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이 흔한 일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Boddy, 1995; Hartley, 1999), 한국의 텔레비전 역시 1970년대 대중화 이전까지 약국, 만화방, 텔레비전 관람소, 가전제품 대리점, 지역 부잣집 대청마루 등에서 집단 시청 행태를 꾸준히 이어 왔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임중수, 2007 참조). 유동성의 사사화라는 텔레비전 수용자의 공적-사적 영역 간의 상호 교섭(negotiation)이 공간적으로 공적 공간에서 먼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적 공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부와 차단되어 엄격한 내실 생활이 요구되던(특히 양반 가문의 전통이 강한 집안) 전통적인 가정(안방, 대청마루)은 텔레비전이라는 공간-기계(space-machine)가 놓임으로써 '텔레비전 구경'을 하러 오는 외부인의 침투를 허용했다. 이는 이른바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집단적인 오락이나 집단과 더불어, 앉는 위치와 시청 제한시간대(대체로 뉴스나 쇼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결에 맞춘)와 같은 나름의 자율적인 규율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랑방' 문화나 '마실 다니기'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방극장'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사적인' 텔레비전 생활은

그 이전의 전 근대적 사생활이 일정한 집단성을 거쳐 구축된 근대적 양태의 사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적 경험으로서 가족 텔레비전은 전근대적 사생활 내에 잠재해 있던 전통적 집단성 혹은 공동체성에 기반한 집단 시청으로부터 그 경계가 확장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초기 가족 텔레비전 공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분화되는 일종의 ‘점이지대(漸移地帶)’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사적인 텔레비전 생활은 전통적인 안방의 내실 문화가 사랑채 혹은 마실 다니기의 집단 문화와 상호 수렴되어 후자가 점차 사라지면서 태동한 근대적 가정문화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훗날 시청자라는 존재가 (청취자에게서 물려받은) ‘가족’과 동의어로 인식되는 계기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결집, 가족의 생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해독과 이용을 가족 텔레비전 시청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노력(Bogart, 1956; Spigel, 1992; Morley, 1986)이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임종수(2003)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시청자로서 가족이 안방 혹은 거실에서 그들만의 안락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 텔레비전이 안방(곧이어 거실이 그 기능을 대신했다)에 놓였다는 것은 텔레비전이 외부와 차단된 가족들만의 정서적 공동체성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준 대표적인 테크놀로지였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근대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함께’ 보면서 저녁 시간의 단란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시청자는 개별화와 파편화라는 차이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역시 이전 시기 도서, 라디오가 그랬던 것처럼 문화적 도구임과 동시에 비문화적이고 야만적인 미디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임종수, 2008 참조). 텔레비전 영상의 직접적인 시각 효과는, 어두운 곳에서 익명적으로 수용하는 영화와 달리, 때때로 텔레비전을 함께 시청하는 부모(조부)와 자녀, 부부, 이성과 동성 간에 어색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위계질서에 따라 시청자로서의 권리도 제각

각 달랐다. 텔레비전 속은 물론 텔레비전 시청으로 그 뜻을 쉽사리 돌리곤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불륜과 사치, 문화의 하향 평준화, 농촌 청년의 도시행, 존경받던 노인의 권위 실종 등 텔레비전의 비문화적 기계성은 텔레비전 시청의 ‘결끄러운 즐거움(guilty pleasure)’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1960~1970년대 텔레비전 시청자는 ‘국민’과 ‘산업역군’의 지위도 부여받았다. 이는 한국의 텔레비전 문화가 근대화와 분단된 조국 만들기와 동시 병행되었던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 우리에게 텔레비전은 자연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에서 실증된 유용성을 거울삼아 능동적이며 의도적으로 도입하고 육성시킬 필요가 있었다(서규석, 1969). 그 외중에 텔레비전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려 근대적 주체를 육성하기보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현실도피를 하거나 근대화에 지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는 오락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성공적이었다(서규석, 1968, 1973). 1960~197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일일극과 쇼오락, 목적극과 민족사관정립극 등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와 드라마로 크게 히트했던 <팔도강산>은 물론이고 <쇼쇼쇼>와 같이 당대 번성하던 오락 프로그램도 발전하는 조국상과 즐거운 삶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였다(박용규, 2007). 물론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고, 방송 자체도 ‘재미’라는 본질적 요소를 경외시하지 않았다(정순일, 1991; 조향제, 1994). 따라서 근대화 프로젝트 당시 가족, 국민, 산업역군으로서 시청자의 경험은 가족 여가와 오락의 차원에서 재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용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는 발전하는 조국상을 목격함은 물론 그 안에서 반공, 발전을 미덕으로 하는 국민 만들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옥외 안테나로 확인되는 텔레비전 보급 행위 자체가 발전하는 조국상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집과 가족을 근대적 시청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했다(임종수, 2004 참조). 1970년대 개발연대 세력이 주력했던 이른바 ‘전시강박’은 일찍이 베넷(Bennet, 1995)이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 당시 국가와 국민 모두로 하여금 근대화의 변화가 주는 전시 효과에 경도되게 했다. 따라서 1960~1970년대 시청자는 조국 근대화의 주체이자 근대화된 조국의 구경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고층빌딩, 슬레이트 지붕, 반듯한 아스팔트로 변신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한 각종 드라마, 영화, 쇼오락의 경험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1960~1970년대 조국 근대화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당대의 대표적인 시청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차적 대상이었던 것이다. 텔레비전 자체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을 통한 근대화의 목격이 근대가족, 반공, 국민, 산업역군으로서 시청자의 지위는 물론 당대 시청자의 경험을 집단 기억으로 자리매김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6. 결론을 대신해서: 수용자의 탄생과 다중 미디어 경험

### 1) 수용자, 신민에서 국민으로, 문화인과 비문화인이 경계선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독자와 청취자, 시청자라는 수용자의 탄생과 경험에 대해 살펴왔다. 수용자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 등장했으며, 어떤 고유한 경험을 했는가? 수용자의 존재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을 통해 이 연구가 모색하고자 했던 바는 집합적 유목도, 그렇다고 상상적 허구 혹은 담론 그 자체로 머무는 것도 아닌, 당대의 시대 상황과 상호 조응된 경험적 실체로서 수용자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그 방법으로 수용자가 미디어와의 절합 과정을 통해 어떤 지위와 경험을 획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수용자 중심으로 본 미디어 사회문화사를 기술함과 더불어 미디어 수용자들에 의한 다중 미디어 이용의 기본 속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하지만 축적된 연구와 자료의 한계,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는 개별 수용자의 탄생 과정을 통해 유추적인 이해를 구하는 우회적 접근을 선택했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 청취자, 시청자라는 수용자는 식민지라는 특수성, 남북분단과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특수성에서 탄생했다. 그 속에서 읽기와 듣기, 보기는 굽적굽적한 당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핵심 감각이었다. 먼저 독자는 전통적인 문자 콘텐츠에 입각하여 그 외연을 넓힌 조선후기를 거쳐, 1920~1930년대 식민지 하에서 제한적인 근대 독자층을 형성했다. 이들 독자들은 한글과 훗날에는 일본어를 깨쳤으며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영위한 이른바 근대화 신세대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양식의 읽기와 쓰기 문화를 체득한 문화인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개화와 신질서를 체득한 근대인, 더 나아가서는 신민으로서 지위를 호명 받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대중화되어 가는 소설과 음란서 등으로 인해 독자는 비천하고 감각적인 문화를 섭렵하는 데카당의 족속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읽기와 쓰기가 가지는 고급과 순수, 문화와 문명적 시각은 대중과 통속, 저질과 오락, 데카당과 양가성을 이룬 채 독자 수용자의 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인쇄물 및 독자에 대한 취향 판단, 제도적 수용 체계 등은 이후 지속적으로 재창출되었으며, 더 나아가 청취자는 물론이고 시청자로 이어지는 수용자관의 기본 토대로 작용했다.

청취자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등장했다. 따라서 청취자 또한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바탕으로 한 집단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표준화와 동시성, 정기성과 같은 일상생활의 신질서를 체득하는 한편, 신민으로서 청취자상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신문화인으로서의 지위도 견고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라디오가 대중속으로 깊이 파고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1960년대 황금기를 맞은 라디오는 당대의 시대적 과제였던 근대화에서 근대가족의 재미와 오락, 더 나아가 근대적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가족으로서 청취자는 점차 사라지고 개인으로서 청취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시청자는 청취자가 전성기를 맞을 무렵 그 연장선상에서 등장했다.

독자, 청취자와 마찬가지로 시청자는 텔레비전의 공공적 이용과정을 거치면서 확고한 근대가족으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다. 시청자를 가족으로 동일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일찍이 라디오 청취자에게서부터 시작했지만, 텔레비전은 곧이어 그 지위를 계승했다. 그리고 그 가족 시청이란 것도 독자와 청취자에서 보아 왔던 집단 시청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1960~19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 안에서 반공과 국민, 산업역군이라는 호명의 대상이기도 했다. 드라마와 쇼, 스포츠 등 다양한 텔레비전 콘텐츠가 그러한 점을 반영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독자, 청취자, 시청자에 대한 당대의 상이 근대인, 문화인, 신민, 국민, 산업역군, 가족 등으로 표상화되었다고 해서 도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어떤 이데올로기,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 등은 생산자가 의도했던 콘텐츠, 특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 대중매체는 당대의 이슈를 반영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본적인 요소로 삼고 있었고 수용자 역시 그 능동성을 잃지는 않았다. 우리는 본문 곳곳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재미를 통해 당대의 주체구성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디어 수용자로서 근대인, 신민, 가족, 반공과 국민, 산업역군 등의 지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한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민에서 국민으로 그 정체성이 전환되어 왔으며, 그 위치는 항상 문화인과 비문화인이라는 존재론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혹은 반쪽짜리 한국에서의 근대성 경험, 그것은 곧 독자, 청취자, 시청자로서의 지위와 인식, 경험을 통한 당대의 정상적 삶, 정상적 인식과 실천의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 청취자, 시청자는 각기 다른 시대에 그 지위와 정체성을 각기 다르게 구축하면서도 문화/비문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계열적 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3종 신기(神器)의 대표 격인 텔레비전이 국민적 미디어로서 전

후 일본의 민주화, 민족국가, 그리고 국민 만들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지적(강상중·순야 저/임성모·김경원 역, 2004)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설명은 다분히 기술 국가주의적 시각이기는 하지만, 미디어 수용자가 2차 세계대전 이전 제국 시대의 근대인과 이후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근대인으로 나뉘어 존재했다는 입체적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피식민자 경험을 한 한국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미디어-수용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 2) 수용자의 다중 미디어 경험: 문화와 비문화, 위계성, 개인화

독자, 청취자, 시청자의 탄생은 다른 한편 다중 미디어 시대 수용자의 복합적 경험을 내포한다. 수용자의 경험이 도서(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전에 조용하는 독자 → 청취자 → 시청자의 단선적 흐름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독자는 곧 청취자이기도 하고 시청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미디어 해독연구에서 설명인자 찾기만큼이나 복잡해 보인다. 개별 수용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물론 미디어 소비의 공간적, 시간적 차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아날로그 미디어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이렇다 할 주장을 제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수용자가 일상의 미디어들과 어떤 궤적으로 결합했는가의 고찰을 통해 이들 수용자군의 복합적 미디어 경험의 기본 속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수용자는 식민 시기와 한국전쟁, 근대화 프로젝트 등을 거치면서 '단절을 통한 탄생' 과정을 거쳐 왔다. 일찍이 독자는 1920년대 이래 점진적인 국민교육 제도의 정착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왔지만, 한글 외에 한자, 일본어 등의 문자 문화 속에서 복잡한 발전 과정을 거쳤다. 주지하다시피 1940년대 초반은 이미 일본어가 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광복 후에도 일본의 문자 문화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청취자 역시 1920년대에 이미 등장했지만, 본격적인 라디오 청취자 시대를 연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시청자 또한 1956년 첫 경험을 했

지만, 본격적인 시청자 시대를 연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칭호의 하강효과이다. 또한 그 칭호가 시간 간격을 두고 '위계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자든, 청취자든, 시청자든 초기 수용자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들 집단이 만들어냈던 문화적 존재로서 수용자상은 해당 매체의 사회적 보급에 상당 부문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미디어 상태에서 대중적 보급이 이루어지는 순간 수용자는 문화인에서 비문화, 심지어 반문화의 담지자로 쉽사리 전환되곤 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찍이 독자에게서 발견되었고 청취자, 시청자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문자 시대 이래 시청각 미디어의 등장과 늘 함께 해 온 교양과 소비, 문화와 비문화라는 위계성이 수용자의 탄생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거칠지만 개별 미디어 수용자의 탄생 과정에서 생긴 단절을 계기로 이전의 문화 담론과 이후의 비문화 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 1956년 HLKZ-TV는 “긴 생명”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것으로(『한국일보』, 195년 5. 13, 1면), 일각에서는 ‘근대화된 가정 오락의 원천’, ‘진리인식의 새로운 방법’, ‘근대화된 민주주의의 지표’의 하나(오영진, 1956)로 인식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도 교육적 유의성이 미디어 채택의 일차적인 요인이었다(황기오, 1963). 그러나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는 그로 인한 폐해, 가령 음란서의 유통, 신사고의 무분별한 유포, 불륜과 사치,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문화의 하향 평준화, 농촌 청년의 도시행, 연장자의 권위 실종 등과 연결됨으로써 오히려 거부되어야 할 품목으로 담론화되곤 했다. 그렇다고 그런 미디어가 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거부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일정한 타협점이 모색되었다. 일찍부터 텔레비전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지대하여 이것이 교육적·문화적 달성에의 이기, 다시 말하면 문명의 이기로서의 위력은 그 어느 ‘매스미디어’보다도 우월하지만, 반면에 잘드는 칼의 용도가 위험할 수 있듯이 오늘의 ‘텔레비존’은 위험과 안전의 중간선을 불안한 줄

타기로 걸어가고 있는”(정완재, 1963) 형국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독자와 방송 청취자 및 시청자 간의 간극이 분명히 두드러져 보인다. 사실 영상문화에 대한 문자 문화의 상대적 우월의식은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었다(임중수, 2003b, 117~121쪽 참조). 광고 시장을 사이에 둔 방송과 신문매체 간의 갈등은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따라서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일천한’ 미디어에 대한 독자들의 ‘무시’ 혹은 ‘외면’ 현상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방송 담당 신문기자는 “신문사 문화부장 체통도 지키지 못하고 시시하게 텔레비전 평이나 쓰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노골적인 질책도 있다(여성동아, 1973년 9월호, 180쪽).”라고 당시 상황을 적고 있다. 결국 엘리트 집단이나 사회경제적 상층부 등 문화자본의 수준에 따라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간에 각기 다른 인식과 소비관행의 위계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용자-문화자본에 따라 다층적 미디어 소비가 상당 부문 위계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위계성은 독자활동과 시청취자 활동 간에도, 청취자와 시청자 간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미디어 소비의 ‘개인화’ 경향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 진화과정은 분명히 개인화 경향을 보여준다(Fang, 1997).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도서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모두 마을회관, 약국, 전파사, 또는 부잣집 대청마루나 거실 등에서 집단적으로 이용되다가 점차 가족 단위의 소비관행으로 옮겨갔다. 주로 신기성과 돌출성, 이벤트성이 작동되던 집단적 이용과 달리, 가족 단위의 소비는 미디어가 일상의 한 부문이 되었음을 뜻한다. 일상의 가족 미디어는 삶의 한 부문이기 때문에 거부되기가 힘들다. 그것은 개인의 결정과 판단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이들 미디어는 가정교육과 상당 부문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처럼 개인적 판단이나 회피를 어렵게 하는 매체일수록 그 위계가 낮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런 미디어가 신문도 라디오도, 최근에는 텔레비전도 점차 개인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실 다층적

미디어 소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신문에 대한 기성세대의 선호, 워크맨 라디오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선호, 잡지에 대한 주부 혹은 직장인의 선호 현상은 모두 이들 매체에 대한 특정 수용자군의 절합에서 작동하는 판단과 통제, 문화행위의 효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 절합 과정에서 수용자는 시기마다 근대인, 신민, 가족, 반공, 국민, 산업역군 등으로 자신을 구축해 왔던 셈이다). 결국 거시적으로 볼 때, 미디어 소비의 개인화 경향은 다중 미디어 소비의 위계화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문화담론의 하강효과와 위계성, 이중성, 개인화는 쉽 없이 밀려드는 작금의 디지털 융합미디어, 서비스, 단말기의 사용에 많은 함의를 준다. DMB, 영상폰, 무선인터넷 등은 디지털 융합미디어의 새로운 수용자를 태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다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은 어떤 수용자의 탄생을 가져왔는가? 그들은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떤 고유한 경험을 내재화하는가? 하이퍼텍스트는 우리의 지식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의 감각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복잡다기한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지금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고하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상중·요시미 슌야 (2001). 임성모·김경원 역 (2004).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
-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 한국방송약사. 『방송』, 1958년 8월호, 84~95.
- 경성탐보군 (1927). 商界閑話. 『별건곤』, 1927년 3월호, 106~107호.
- 김동인 (1933). 신문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 『조선일보』, 1933년 5월 14일.
- 津川泉 (1993). 김재홍 역 (1999). 『JODK, 사라진 호출부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희 (2003). 한국의 라디오 시기의 라디오 수용현상. 『한국언론학보』, 47권 1호, 140~165.
- 김영희 (2002). 일제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150~183.
- 김영희 (2001). 일제 지배시기 한국인의 신문접촉 경향.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39~71.
- 김예란 (2005). 디지털 아비투스: 플랫폼을 넘나드는 콘텐츠 소비문화.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67~109.
- 김혜경 (2000). 식민지 시기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어린이, 모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8집, 71~105.
- 노정팔 (1995). 『한국방송 50년』, 나남.
- 마동훈 (2003). 초기 라디오와 근대적 일상. 『언론과 사회』, 12권 1호, 56~91.
- 민병덕 (1989). 한국근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작품의 공감구조와 출판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규 (2007). 한국 텔레비전 음악 버라이어티쇼의 성쇠: TBC-TV의 ‘쇼쇼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 텔레비전의 역사와 문화’ 세미나 자료집, 55~74.
- 서규석 (1973). 72년 TV편성동향. 『한국방송연감 73』, 47~56.
- 서규석 (1969). 한국사회와 텔레비전의 의의. 『방송문화』, 1969년 2~3월호, 19~22.
- 서규석 (1968). 새로운 인간상의 추구. 『방송문화』, 1968년 3월호, 66~70.

- 서재길 (2007). 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미암 (1963). ‘애프’촌을 진단한다: 비약의 걸음 밟고 업계는 고민. 『방송문화』, 1963년 12월호, 48~52.
- 안테나생 (1936). 라디오는 누가 제일 잘하나. 『조광』, 3호, 274~277.
- 오경환 (2007). 집단기억과 역사: 집단기억의 역사적 적용. 『아태 쟁점과 연구』, 2007년 가을호, 83~104.
- 오영진 (1956). 텔레비전 구경 - 새로운 시대는 왔다. 『조선일보』, 1956년 5월 18일, 4면.
- 유선영 (1993). 대중적 읽을거리의 근대적 구성과정: 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까지. 『언론과 사회』 제2호, 48~80.
- 윤대석 (2003). 1940년대 전반기 황국 신민화 운동과 국가의 시간·신체 관리. 『한국현대문학연구』, 13호, 79~100.
- 이강수 (1996).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의 패러다임 논쟁』. 나남출판.
- 이기훈 (2001).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 1920년대의 책읽기. 『역사문제연구』, 7호, 11~71.
- 이기훈 (2002).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8호, 9~44.
- 이내수 (2001).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들.
- 이상길 (2003). 인텔리 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36호, 119~139.
- 이재현 (2006).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콘텐츠: 멀티플랫폼 이론의 구성과 적용. 『방송문화연구』, 18권 2호, 285~317.
- 이재현 (1999).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텔레비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주혁 (1974). TV문화의 망령들. 『세대』, 1974년 5월호, 264~271.
- 이혜구 (1960). 방송 30년 중횡담. 『방송』, 1960년 2월호, 56~71.
- 임덕규 (1979). 점차적으로 문제시되는 텔레비전 공해. 『농문문화』, 1979년 9월호, 16~19.
- 임인생 (1930). 모던이즘. 『별건곤』, 1930년 1월호, 136~140.
- 임종수 (2008). 1970년대 텔레비전, 문화와 비문화의 양가성. 『언론과 사회』, 16권 1호, 49~85.
- 임종수 (2007). HLKZ-TV, 텔레비전과의 조우. 『언론과 사회』, 15권 2호, 57~96.



- 임종수 (2006). 방송미디어와 근대적 시간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4권 3호, 4~34.
- 임종수 (2004a). 한국 방송의 기원: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제도, 편성, 장르 형성과 진화.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70~396.
- 임종수 (2004b). 1960~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79~107.
- 임종수 (2003a). 텔레비전 안방문화와 근대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공유와 차이. 『언론과 사회』, 12권 1호, 92~135.
- 임종수 (2003b).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일상화와 근대문화의 일상성.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순일 (1991). 『한국방송의 어제와 오늘: 체험적 방송 현대사』. 나남.
- 정원재 (1963). TV와 어린이 가정교육. 『조선일보』, 1963년 3월 30일, 5면.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나남.
- 조항제 (1994).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 백 (2005). 『한국언론수용자운동사』. 한나래.
- 채 백 (1998). 개화기 신문의 간접적 구독 방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4호,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29~256.
- 천정환 (2005). 주체로서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호, 209~235.
- 천정환 (2004).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66호, 343~363.
- 천정환 (2003a). 근대 초기의 대중문화와 청소년의 책임기. 『독서연구』, 9호, 295~329.
- 천정환 (2003b). 『근대의 책임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 최검철 (1977). 초창기의 수신기 보급.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65~67.
- 최요안 (1958). 방송극은 어떻게 쓸까?: 홈·드라마에 관하여. 『방송』, 1958년 1월호, 50~52.
- 최인규 (1976). TV시대의 라디오. 『신문평론』, 1976년 6월호, 86~88.
- 최창봉 (1976). 편성·제작 중심으로 본 HLKZ-TV. 『텔레비전 20년』, 29~32.
- 최창봉 (1977). HLKZ-TV 초기. 한국방송공사 편, 『한국방송사』, 523~525.

- 최창봉 · 강현두 (2001). 『우리방송 100년』. 현암사.
- 한용희 (1959). 어린이 방송이 걸어온 길. 『방송』, 1959년 가을호, 40~61.
- 황기오 (1963). TV ‘프로’와 시청자 의견 종합. 『방송문화』, 1963년 7월호, 34~39.
- Allor, Martin (1988). Relocating the Site of the Audienc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5(3), 217~233.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ng, I. (1991). *Desperately Seeking the Audience*. London: Routledge.
- Ang, I. (1985).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Methuen.
- Bennet, T. (1995). *The Birth of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Bogart, L. (1956). *The Age of Television: A Study of Viewing Habits and the Impact of Television on American Life*. New York: Frederick Ungar.
- Boddy, W. (1995). The Beginnings of American Television. In A. Smith (Ed.). *Television: An International History* (pp. 35~6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ary, Jonathan (1990). 임동근 · 오성훈 외 역 (1999).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 문화과학사.
- Ellis, John (1982). *Visible Fictions: Cinema, Television, Video*. New York: Routledge.
- Fang, Irving (1987).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Boston: Focal Press.
- Fiske, John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 Guy Debord (1992). 이경숙 역 (1996).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 S. (1980). Encoding/Decoding. In Stuart Hall, et al. (Eds.), *Culture, Media, Language* (pp. 128~138). London: Hutchinson.
- Hardt, H. (1992). On Ignoring History: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the Critique of Society.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Communication, History and Theory in America*. London: Routledge, 77~122(Ch.3).
- Hartley, J. (1999). *Uses of television*. New York: Routledge.

- Hartley, J. (1987). Invisible Fictions: Television Audiences, Paedocracy, Pleasure. *Textual Practice* 1(2), 121~138.
- Jensen, K. B., & Rosengren, K. E. (1990). Five Traditions in Search of the Audienc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5(2-3), 207~238.
- Kaufert, D. S., & K. M. Carey (1993). *Communication at a Dista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iebes, T., & E. Katz (1986). Patterns of Involvement in Television Fiction: A Comparative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2), 151~171.
- Lindlof, T. (1988). Media Audience and Interpretative Communities. *Communication Yearbook 11*, 81~107.
- Lull, J. (1980). The Social Uses of Televis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6(3), 197~209.
- McQuail, D. (1997). *Audience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Moore, S. (2000). 임종수 · 김영한 역 (2008). 『미디어와 일상』. 커뮤니케이션 북스.
- Morley, D. (1986). *Family Television: Cultural Power and Domestic Leisure*. London: Comedia.
- Radway, Janice (1987).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London: Verso.
- Scannell, P. (2000). For-Anyone-as-Someone-Structures. *Media, Culture & Society*, 22(1), 5~24.
- Scannell, P. (1996). *Radio, Television & Modern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Scannell, P. (1991). Introduction: The Relevance of Talk. In Paddy Scannell (Ed.). *Broadcast Talk* (pp. 1~13). London: Sage.
- Scannell, P. (1989).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Modern Public Life. *Media, Culture & Society*, 11(2), 135~166.
- Schwartz, Vanessa R. (1998). 노명우 역 (2006). 『구경꾼의 탄생』. 마티.
- Silverstone, 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Smythe, Dallas (1981). *Dependency Road: Communication, Capitalism, Consciousness and Canada*. Norwood: Ablex.
- Spigel, L. (1992). *Make Room for TV: Television and the Family Ideal in Postwar Americ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R. (1961). *Culture and Society*. Harmondsworth: Penguin.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여성동아 해당 호

최초 투고일 • 2010. 1. 14

게재 확정일 • 2010. 1. 29

논문 수정일 • 2010. 2. 10